

공무원연금 '면피용 개혁' 전략하나

# 2020년부터 정부부담 되레 늘어 현직 공무원들은 수령액 안 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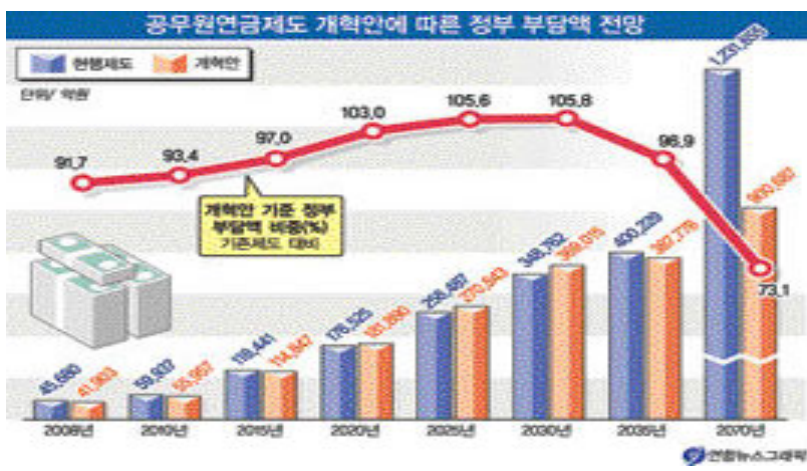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10일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시안은 오는 2035년까지 오히려 정부부담액을 늘려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대폭 늘린 데 따른 것으로 ‘연금재정 악화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따라 시작된 연금개혁의 취지가 오히려 퇴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개혁이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개혁시안은 신규 공직자들이 퇴직을 시작할 즈음인 2035년부터 정부부담액이 줄어들게 되어 결국 개혁의 고통을 퇴직·현직자들은 피해가고 미래의 공무원들에게만 전가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개혁시안은 기존제도에 비해 2008년에는 91.7%의 금액만 지출, 정부의 부담액이 줄어들고 2010년 93.4%, 2015년 97% 등으로 개혁 초기에는 정부 부담이 다소 완화된다.



하지만 2020년에는 103.0%, 2025년 105.6%, 2030년 105.8% 등으로 현재 제도에 비해 정부 부담액이 오히려 늘어난다. 이후 감소세로 전환돼 2035년 96.9%, 2040년 94.6% 등의 추이를 보이다 2070년에는 73.1%로 낮아진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이번 개선안에 따라 정부 부담 규모가 초기에는 약간 개선되나 2020년경부터 약 10년간은 약간 증가하며 그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개선된다”면서 “연금은 장기간에 걸쳐 지

급되는 반면 퇴직금은 일시에 지급되기 때문에 연금개선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 민간 수준에 버금가는 규모로 공무원 퇴직금을 늘린 데 따른 것이란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처럼 개혁시안이 2035년 즈음까지 정부 부담액을 늘리는 것으로 드러나자 10일 열린 위원회 최종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반대 의견을 냈으나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北, 일본 '왜나라'로 표기

작년 12월부터 사용... 대일 분노 표출인 듯

북한 언론이 최근 일본의 국가명을 아예 '왜나라'로 지칭하면서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 언론이 각종 논평과 방송물에서 일본을 왜나라로 지칭한 것은 작년 12월부터. 북한 노동신문은 작년 12월 17일자 논평 '하수인의 추태'에서 일본을 미국의 하수인이라며 아예 유엔 주재 일본 대사를 '유엔주재 왜나라(일본) 대사'라고 표기했다.

그후 북한 언론은 논평 제목 자체를 일본 대신 '왜나라'라고 표현하고 일본 정부 당국을 왜나라 정부당국, 일본 천황을 왜왕, 일본 외상을 왜나라 외상으로 호칭하는 등 일본 고위당국자들을 거론할 때마다 왜나라로 부르고 있다.

작년 12월 19일자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의 논평 '침략의 궤도를 따라 맹렬히 질주하는 왜나라' 제목의 논평은 일본이라는 국가명보다 '왜나라'라는 명칭을 더 많이 사용하는 등 '왜나라' 호칭 횟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일본을 비난할 때마다 '삼나라 오랑캐', '일본 반동' 등으로 비난하기를 했지만 국가명을 아예 '왜나라'로 바꿔 부르면서 비난한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이같은 비난전은 일본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 이후 미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앞장서고 있는데 대한 반발과 분노의 표출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 현장과 시각

### 실망스런 전남교육위원



최재호

체육부 차장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라 교육위원들도 연간 5천만원 내외의 의정비를 받는다. 무보수로 일할 때와 달리 월세를 봉급으로 받는 만큼 교육위원의 자질과 역할, 임무에 대한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그만큼 커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일부 전남도교육위원들의 행보는

석연치 않거나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Y위원은 지난해 11월 21일 담양 창평고등학교에 대한 운영실태 파악에 나서 예산집행의 형평성과 공사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 학교에 대한 방문확인 결과 보고서에 “예산 지원시 사전에 기술직 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 후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이 현지 확인을 했는지 안했는지, 적정성을 검토했는지 안했는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문제점 시정을 위해서는 이를 곧바로 분청에 통고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시정명령 등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Y위원은 이런 절차는 거치지 않고 2개월동안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사이 창평고의 교장은 Y위원이 공·사석에서 창평고의 문제점을 자주 거론한다는 말을 듣고 Y위원을 만나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Y위원은 창평고 교장이 다녀간 직후 최근 언론에 감사내용을 공개하며 “도교육청이 창평고에 특별혜상 지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주변에서는 “당시 곧바로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동안 무얼하다가 이제야 내놓느냐”며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문제점을 무달 뒤에야 공개한 이유에 대해 그는 “방학중이라 시기가 부적절 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도 방학중이라는 마한가지다.

더욱이 창평고가 특별을 받았다는 지적도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 2년간 ‘사립학교 시설비 지원비’로 도교육청이 집행한 돈은 장성고에 49억7천만원, 화순 능주고에 17억5천만원, 영광 해룡고에 19억7천여만원이다. 창평고에 간 돈은 이보다 훨씬 적은 5억8천여만원이다.

N 교육위원은 지난해 9월 22일 171회 임시회의 본회의장에서 “교장생성님들이 행정실장들 때문에 근무하기가 어렵다”는 투로 일반직 공무원들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 공무원 노조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2차례 항의방문을 하는 등 한동안 시끄러웠다.

교육위원들은 교육정책 수립,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을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전남도교육청 및 신상 교육기관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항상 깨끗하고 공정해야 한다. 더욱이 이젠 봉급을 받는 ‘교육 프로페셔널’이다. 세상이 교육위원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기 바란다. /lion@kwangju.co.kr

# ‘김흥주 로비’ 수사 반환점 돌아

한광옥 前청와대 비서실장 소환... 금감원 연루 밝혀내



한광옥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김흥주 삼주산업 회장 로비 의혹과 관련해 1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부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흥주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11일 한광옥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소환조사를 정점으로 차츰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김흥주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큰 고비는 이번 주 안에 다 넘겨지며 제일 신경썼던 것은 금융감독원이었는데 이에 대한 윤곽은 거의 잡혔다”고 말했다.

검찰은 2001년 초 김씨에게서 돈을 받고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 작업을 도와준 혐의 등으로 김중희 금감원 부원장과 신상식 전 금감원 광주지원장을 8일 구속했고 당시 김씨를 김 부원장에게 소개해줬던 이근영 전 금감원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 전 원장은 전날 김 부원장과 대질신문에서 김씨를 소개한 경위와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 추가 소환 등 보강조사를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에 출두한 한 전 실장의 경우 1999년 정계에 복귀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을 위해 김씨에게 사무실 보증금과 임대료를 대신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날 한 전 실장을 상대로 김씨 사무실을 마련해준 데 대한 대가로 특별혜를 준 일이 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금감원을 주 타깃으로 한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긴 했지만 정·관계, 법조계 등이 폭넓게 연루된 ‘김흥주 로비’ 의혹의 실체를 밝혀내는데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면하기는 어려운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20주년

6월 민주항쟁 20년사업추진위원회 회원들이 11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20주년을 맞아 호의를 제창해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최욱일씨 조속한 처리 위해 노력”

〈탈북 남북여부〉

리자오싱 中 외교부장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은 11일 중국으로 탈북, 현재 한국행을 준비중인 남북여부 최욱일씨 건과 관련, “조속한 처리를 위해 중국내 관련 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리 부장은 이날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송 장관이 최씨의 조속한 귀환을 위한 중

국 당국의 협조를 강력히 요구한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전했다.

리 부장이 언급한 ‘법 절차’는 출입국 관련 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두 장관은 또 송 장관이 최근 미국을 방문, 이측과 북핵 문제를 협의한 결과를 기초로 차기 6자회담 조기 재개 및 재개시 생산적 결과를 도출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연합뉴스

2007년 中國 명문대학 精英 입학반 모집

2007년 5월 중국대학 입학

2007년 5월 명문대학 입학

2007년 9월 명문대학 입학

중국대학 입학 설명회

www.114china.com.cn

전화: 010-8469-9373

경동 심야 전기보일러 특별보급

398만원에 특별공급합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저렴한 심야 전기 보일러를 보급하는 등 ▶ 특화된 설치, 합리적인 보 ▶ 최근 현직현물적인 설치비용 ▶ 선별지출 최대 36개월 분할 납부 가능

이제라도 빠른 시점으로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경동보일러

광주 062)673-4981

전북 010-8469-9373